

## 백두대간 체계 안에 내포된 유역 개념과 문제점

이도원\* · 신준환<sup>1</sup> · 강신규<sup>2</sup>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sup>1</sup>임업연구원 산림생태과

<sup>2</sup>Numerical Terradynamic Simulation Group, School of Forestry, University of Montana

**적 요:** 옛 지도와 문헌자료에는 그려질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태적 개념이 담겨 있다. 여기서 우리는 한국의 고지도에 나타나는 유역 개념을 소개하고, 문헌 기록을 통해서 그 개념이 나타난 역사를 간단하게 소개한다. 많은 사람들이 백두대간에 대해 논의하는 글에서 산줄기에 역점을 두고 있지만 우리는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다른 관점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것은 백두대간 체계가 유역 개념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개념은 1402년에 그려진 것으로 알려진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에서 나타나며, 12세기에 집필된 이인로의 청학동유람 기록에서도 이미 그런 시각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한국의 전형적인 경관짜임은 이러한 유역 개념에 바탕에서 피어났을 것이라는 가설을 제안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을 키운 관점이 오늘날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경우도 있어 논의한다. 선조들의 생각이 자랑스럽기는 하지만 그것들을 현명한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검색어:** 경관, 고문헌, 백두대간, 유역

### 서 론

유역은 호수와 강, 하구, 습지, 지류를 포함하는 수계들로 배수가 이루어지는 지역과 그 지역을 둘러싼 땅 경관을 말한다 (U.S. EPA 2002). 물이 강이나 그 지천을 통해 바다로 빠져나가는 모든 공간을 가리키는 말로서 이를 테면 한강유역, 낙동강유역, 압록강유역, 황하강유역, 아마존강유역 등을 들 수 있다.

유역의 자연과 문화는 토지 이용이라는 물리적인 표현으로 나타난다. 토지이용의 부산물은 자연스럽게 빗물에 녹아 강으로 흘러가기에 수량과 수질에 영향을 준다(이도원 2001). 즉, 인간의 활동은 유역의 토지이용을 바꾸게 되고 이로 인해 유역의 특성은 바뀌었고 결국 하천생태계의 특성도 변화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도시지역에서 불투수층이 증가함에 따라 물과 오염물이 지표로 유출되는 정도가 증가되었고, 배수공간을 따라 제거된 식생과 불어난 하천유량은 경관을 더욱 메마른 조건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토양침식을 가중시켰다. 뿐만 아니라 물과 그 속에 함유된 오염물의 이동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생명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거나 인간의 건강에 위해한 것들을 만들기도 하였으며 끝내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되었다. 이와 같이 유역의 변화에 따른 수자원의 악화는 세계적으로 일반화 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유역관리는 이러한 노력으로 진행되는 환경관리의 한 형태로 최근에 특별히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글은 백두대간이라는 말 속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 중에서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유역 개념을 지적하고 기술하고자 시작되었다. 이러한 접근을 시도하기 위해 옛 지도와 문헌을 살펴보고 그와 관련된 현대생태학의 개념을 설명하여 관계를 논의한다.

### 백두대간과 유역 개념

한국의 옛 지도들을 보면 대부분 우리 땅을 몇 개의 유역들로 나누고 있는데 큰 유역들은 대간과 정간, 정맥의 마루금으로 나누어져 있다(그림 1, 2). 이 마루금은 분수령을 이루며, 분수령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공간이 바로 유역이다.

우리나라 옛 지도에서 뚜렷이 나타나는 마루금은 바로 유역의 경계가 된다. 중국과 일본의 지도에 산이 단독으로 표시된 것과 달리 우리 지도에서 여러 개의 산을 연결하여 마루금이 나오게 한 것은 지도 제작에 풍수가인 상지관(相地官)이 참여했기 때문이다(이상태 1999). 특히 백두대간이라는 말로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산줄기와 그에 잇닿아 있는 작은 산줄기로 그려진 우리의 옛 지도에서 유역에 대한 조상들의 인식은 쉽게 실증된다.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부터 시작하여 두류산과 마대산, 금강산, 설악산, 태백산, 소백산, 속리산,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산줄기를 말한다. 장백정간은 두류산에서부터 서수라까지 뻗어 있어서 함경북도를 북쪽과 남쪽 지역으로 나누는 산줄기다. 다른 주요한 마루금은 13개의 정맥이다(이우형 1996, 조석필 1997).

\* Corresponding author; Phone: 82-2-880-5650, e-mail: leedw@sn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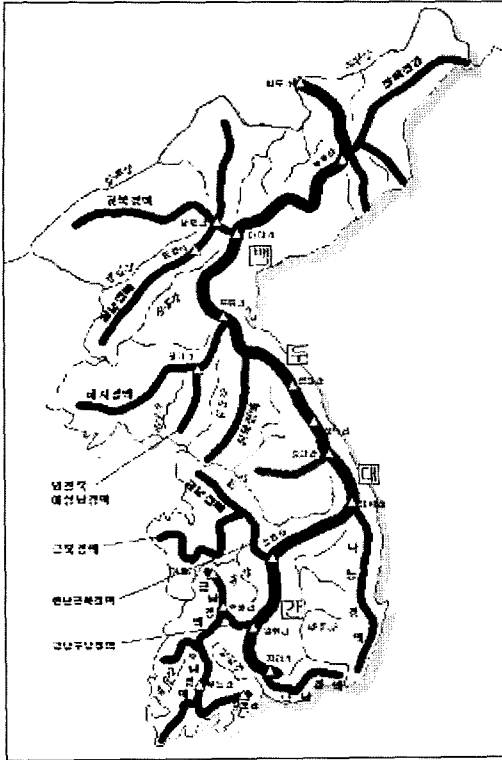


Fig. 1. A map of the Korean Peninsula showing the Baekdoodaegan frame. In the map, the Han River Basin appears as an area bounded by part of the Baekdoodaegan, Hannamjungmack and Hanbookjungmack.

백두대간의 개념이 1757년에 그려진 정상기의 조선전도에 나타난 것처럼(한영우 등 1999) 유역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산수를 음양 관계 그리고 뼈와 살의 관계에서 보고(한영우 1999), 정맥의 이름을 강을 기준으로 붙인 사실에서 마루금을 유역 개념과 연결하여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를 테면 청천강 이북의 땅을 싸는 주요 마루금은 청북정맥(淸北正脈)이고 이남의 경우는 청남정맥(淸南正脈)이며, 한강 유역에서는 각각 한북정맥(漢北正脈)과 한남정맥(漢南正脈)으로 북쪽과 남쪽의 경계가 된다(그림 1). 이처럼 하나의 유역권을 감싸는 산줄기에는 정맥이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여러 개의 유역과 관련된 경우에는 대간과 정간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사실은 산줄기를 강 또는 유역을 고려하여 이해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양보경 2002).

태종 2년(1402년)에 제작된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에서 주요 산맥과 강이 국토의 골격으로 표현되어 이미 ‘유역’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 이는 대사성 권근(權近), 좌정승 김사형(金士衡), 우정승 이무(李茂), 검상(檢詳) 이회(李回)가 만든 세계 지도로 길이 171 cm 너비 164 cm 크기이다. 일본 龍谷大學에 소장되어 있는 것이 대표적인데 비단종이에 채색으로 그렸으며 4 개의 지도를 조합한 것이다(이상태 1999). 중국 이택민의 “성교광피도”와 천태승과 청준의 “혼일강리도”



Fig. 2. Korean part of Honilgangriyukdagookdo-Jido drawn in 1402 (by courtesy of the Kyujang-Gak Archives, Seoul National University).

를 하나로 합친 다음 우리나라를 그려 넣고, 다시 태종 1년에 박돈지(朴敦之)가 일본 사신으로 가서 얻은 일본도를 추가했다. 일본도에는 일기도와 대마도가 빠져 있어 박돈지가 보충했다(이상태 1999).

이 지도의 우리나라 부분을 확대해 보면 특히 낙동강 유역이 분수령으로 완벽하게 에워싸여 있다(그림 2). 이 지도에서 한강 유역에 비해서 낙동강 유역이 특히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는 사실은 흥미롭다. 태백산에서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가 양쪽을 가르는 뚜렷한 경계인 점이 작용했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실제 크기보다 훨씬 넓게 나타난 점을 미루어 지도 제작자가 경상도 지역에 대한 정보를 더 잘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롯된 현상일 수도 있다.

한영우는 역대지도에서 한반도 크기가 실제보다 크게 그려진 것이 흠이지만 한국인의 독창성이 잘 나타나는 곳으로 보고, 백두대간의 산맥을 강조한 것은 고려시대 이래의 풍수지리적 작도법을 계승한 것으로 해석한다(한영우 등 1999). 저자는 조선 태조 5년(1396년)에 쓴 이침의 “삼국도후서”의 글을 다음과 같이 옮겨놓았다.

“삼국을 통합한 뒤 비로소 ‘고려도’가 생겼으나 누가 만든 것인지 알 수 없다. 산맥을 보면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구불구불 내려오다가 철령(鐵嶺)에 이르러 별안간 솟아오르며 풍악(금강산)이 되었고, 거기서 중중첩첩하여 태백산, 소백산, 죽령...이 되었다. 중대(中臺)는 운봉(雲峰)으로 뻗었는데 지리와 지축(地軸)이 여기 와서는 다시 바다를 지나 남쪽으로 가지 않고 청숙(淸淑)한 기운이 서려 뭉쳤기 때문에 산이 지극히 높아서 다른 산은 이만큼 크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 등의 서쪽으로 흐르는 물은 살수(薩水)·패강(溟江)·벽란(碧瀾)·웅진(熊津)인데 모두 서해

로 들어가고, 그 등마루 동쪽으로 흐르는 물중에서 가야진(가야진, 낙동강: 한영우 해석)만이 남쪽으로 흘러갈 뿐이다. 원기가 화하여 붕치고, 산이 끝나면 물이 앞을 돌렸으나....”

이 인용을 통해서 한영우는 고려시대에 이미 백두산에서 뻗어 내린 대간(大幹)을 산맥의 대줄기로 인식하고, 거기서 흘러내린 물줄기를 풍수지리사상에 입각하여 하나의 생명체로 파악하고자 하던 지도 제작 태도를 한국 고지도의 특성으로 보고 있다. 양보경(2002)도 “우리나라 지맥을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지리산에서 끝난다.”는 高麗史節要 권26 恭民王 6년 윤월 부분을 언급하며 같은 의견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지형을 보는 이러한 태도는 고려시대 이인로(1152-1220)의 청학동유람 기록에서도 발견된다.

“지리산은 ‘두류산’이라고도 한다. 원나라 영내의 백두산에서부터 시작하여 꽃봉오리와 꽃받침처럼 잘 어우러진 봉우리와 골짜기가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다 대방군(帶方郡, 전라남도 남원군의 옛 이름)에 이르러서 수 천리에 서리어 맺히었다(최석기 등 2001).”

1757년 정상기가 그린 조선3전도(동국대전도)에서는 백두대간을 비롯한 주요 산맥의 흐름이 두드러지게 그려져 우리 땅을 큰 유역으로 나누고 있다(한영우 등 1999). 정조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측되는 여지도(輿地圖)라는 지도집에서도 우리나라 모양을 여러 개의 대표적인 유역으로 나누고 있다(그림 2). 여지도 중에서 조선·일본·유구국도는 조선·일본·중국 연안의 윤곽을 위치와 축척을 무시하고 그려 사실성이 떨어지지만(한영우 등 1999) 우리나라는 녹색의 산줄기에 의해서 낙동강과 섬진강, 금강, 한강, 임진강, 대동강 등의 강 유역들로 분명하게 나누어져 있다.

그 밖의 많은 한국의 고지도들 역시 한국 사람들이 유역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음을 실증하고 있다. 18세기 말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정주(定州) 지도에서도 산봉우리로 이어진 마루금은 분수령을 나타내고 있으며, 작은 유역의 중앙에 마을이 있고, 그 바깥으로 다시 큰 유역이 싸고 있다(그림 3). 이러한 관계는 한영우 등 (1999)의 해석처럼 풍수지리적 작도법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풍수개념으로 볼 때 작은 유역이 마을을 감싸고 있는 것은 내청룡과 내백호이고, 다시 큰 유역이 감싸고 있는 것은 외청룡과 외백호가 된다(최창조 1984). 그림에 가까운 이 지도는 주변 경관과 마을의 배치 관계를 어느 정도 읽을 수 있게 하는 자료이며, 좀 더 자세히 보면 그 안에서 일어난 경관 과정들을 어느 정도 상상할 수 있게 하기조차 하여 경관구조와 기능의 관계를 엿보게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이도원 2001).

백두대간이 유역의 경계로서 인식된 한편 경계가 가진 또 다른 성격을 잘 활용한 모습이 보인다. 경계는 물질과 에너지, 정보와 같은 객체들의 이동 범위를 규정하는 중요한 기능을 가진다(이도원 2001). 반면에 경계가 규정하는 하나의 계(system)가



Fig. 3. An old town lies inside a watershed in the map drawn in the 18th century (by courtesy of the National Central Library, Seoul).

이웃하는 다른 계와 상호작용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객체들이 경계를 벗어나야 한다. 이 때 두 계의 경계가 만나는 부분에서 그러한 객체의 만남이 이루어진다. 이런 까닭에 경계는 서로 다른 계의 다른 객체들이 만나 서로의 교류(또는 반응) 가능성을 타진하는 장소이며, 통합을 모색하는 자리로 이용될 수 있다. 백두대간은 각 유역을 나누는 경계이면서 동시에 각 유역의 정보가 상호작용하기 위한 만남의 장소가 되기도 쉽다는 뜻이다. 신라의 스님 의상이 화엄종의 본사를 백두대간 부근에 설립한 것(그림 4)은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신라와 고구려, 그리고 백제를 통합하는 장소로서 경계를 고려했다는 뜻이다(허남진 개인 정보). 대략 600년 동안 나뉘어 있던 신라, 백제, 고구려가 통일되기는 했지만 문화적인 차이와 적대감이 남아 있던 시기에 의상의 화엄학은 사회의 사상을 통합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김봉렬과 관조, 2002).

한편 우리의 자원이 되는 객체 중에서 우리 눈에 쉽게 띄는 것은 물질이며, 물질 중에서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보고 사용하는 요소는 물이다. 특히 과거에는 같은 우물과 샘, 개울이나 저수지를 공유하는 사람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문화활동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사용하는 물이 같다는 것은 물을 매개로 만날 기회가 많다는 뜻이다. 만남이 많은 것은 정보교환이 원활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같은 물을 쓰는 장정들은 논농사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만남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아낙들은 빨래터와 우물가에 모여 이웃간의 정리를 나누었다. 그런 정보 교환 과정으로 물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같거나 비슷한 물건을 사용하고, 같은 낱말과 억양을 가졌다. 결과적으로 같



Fig. 4. Locations of temples related to a great monk Euisang.

은 유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주거형태나 생활 도구, 방언 등으로 나타나는 많은 동질성을 가지고 있었다(이도원 2001).

#### 문제점과 제안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분명히 백두대간이라는 말이 긍정적이고 흥미 있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는 하지만 부정적인 면도 분명히 포함하고 있다. 이 말은 압록강과 두만강 이남 지역의 특성을 가름할 때 도움이 되는 개념이다. 그러나 국경선은 긴 인류 문화의 역사에서 보면 매우 임시적이고 인위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자연지형에 이름을 붙일 때 오류가 발생한다.

백두대간이라는 말은 무의식 중에 백두산을 공간의 한 끝으로 간주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다. 이는 만주 땅에서 터를 내렸던 우리 민족에게 압록강과 두만강 이남의 제한된 공간을 삶의 터로 국한시키는 개념이다.

조선 초 지리학의 중심인물이었던 양정지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우리의 국경선이라 생각하지 않고 우리나라를 '만리의 나라'라고 생각하였다. 노사신도 우리 국토를 만리라고 표현하였고, 서거정도 만주까지 포함하는 영토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조선방역도"에 만주가 그려져 있는 것은 이를 반영한 것이다(이상태 1999).

태조 때 정도전은 조선의 부국강병을 주장하면서 요동정벌을 계획했다. 요동이 우리의 국토라는 민족적 역사지리 인식이 뿌리박고 있었기 때문이다. "世宗實錄" 지리지에서도 윤관이 정벌한 동북 9성에 대한 내용과 함께 위치가 두만강 이북의 만주지역임을 밝히고 있다. 그리하여 세종은 고려 윤관(尹瓘)이 세운 9성 회복에 영토 확장의 근거를 두었다. 그 당시 목표는 두만강 북쪽 700리에 있었던 공험진(公嶮鎭)과 선춘령(先春嶺)까지의

영역 수복이었다. 김종서에게 공험진의 위치와 윤관의 비가 있는 선춘령을 조사하도록 했다. 6진 개척을 이루고 당시 만주사정과 여진 세력으로 두만강 북쪽의 개척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두만강은 국경으로 고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영토의식은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세조 때까지 이어졌으며, 성종 때에 편찬된 "동국여지승람"에도 반영되어 있다(서인원 2002).

영조(英祖, 1694 ~ 1776) 때 제작된 "대동총도(大東總圖)"와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西北彼我兩界萬里一覽之圖)"의 발문에는 다음과 같이 풍수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분명히 백두대간이라는 말이 궁 "우리나라 지형은 북쪽이 높고 서쪽이 낮으며, 중앙이 좁고 아래(남쪽)가 너적하다. 백산(백두산)이 머리가 되고, 대령(大嶺, 백두대간)이 척추다. 사람이 머리를 옆으로 하고 등을 구부리고서 있는 모습으로, 영남의 대마도와 호남의 탐라도(제주도)는 마치 두 다리와 같다.

해(亥, 서북방)에 앉아서 사(巳, 동남방)를 향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감여가(堪輿家, 풍수가)의 정론이다. 경도(京都)를 기준으로 사방의 위치를 알아보면, (함경도) 경성이 자(子, 정북)가 되고, (전라도) 해남이 오(午, 정남)가 되며, 유(酉, 정서)는 (황해도) 풍천, 묘(卯, 정동)는 (강원도) 강릉이다(한영우 등 1999 재인용).

이 두 지도에 나타나는 지형에 관한 설명은 오래 전부터 내려오던 풍수가의 지리관을 보여준다. 이와 비슷하게 조선 평종 때 풍수학자인 남사고(南師古)가 우리 국토를 호랑이로 비유했다. 나중에 조선통감부가 고토 분지료(小藤文次郎)의 산맥체계론을 교과서에 실으면서 조선인의 나약함을 암시하고자 우리나라 국토 모양을 토끼에 비유했고, 육당 최남선(六堂 崔南善)은 이에 맞서서 여암 신경준(旅庵 申景濬)의 백두대간을 원용하여 연해주를 향해 발톱을 세운 채 포효하는 위풍당당한 호랑이의 모습으로 한반도를 그린다.

이는 대단한 기세로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국토 모양을 토끼로 비유하여 한민족의 공간개념을 좁은 지역으로 국한시킨 알팍한 일본인들의 꾀에 반쯤 넘어간 문제로 이어진다. 먼저 이러한 대응은 만주에서 삶의 터를 내렸던 고구려와 발해의 기개를 과거지사로 돌려버리게 된다. 경상북도 포항의 한 지명을 호랑이 꼬리라는 뜻이 담긴 호미곶으로 개명한 일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 범의 꼬리를 그릴 때 뿜어 나오는 기상의 상징인 양 길고 힘차게 그린 우리 민족의 전통과 맞지 않는다(김만희 1994, 오주석 2003 참고). 사실은 그 지역을 호랑이 꼬리형상으로 보기 어렵다.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근역강산맹호기상도(槿域江山猛虎氣像圖)에서도 그곳이 범의 꼬리로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호랑이 모양의 국토를 가지기 위해 만주 땅을 호령하던 기개를 잃게 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루 빨리 버려야 할 병폐이다.

우리 땅의 모양을 사람이나 동물에 비유하는 관행은 만주를

포기하고 우리 땅을 압록강과 두만강 이남으로 한정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좁은 영토의식이 점점 굳어지게 되었다. 이는 어쩌면 풍수에서 땅 모양을 동물 등 여러 가지 다른 개체들에 비유하는 접근이 나온 한 가지 잘못된 것이다. 많은 경우 비유가 의미의 전달을 쉽게 하지만 실제의 한 국면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본질을 호도하는 위험도 안겨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비슷하게 백두대간이라는 말은 압록강과 두만강 이남 지역을 반도로 규정하는 잘못과도 관련이 있다.

반도와 대륙을 나누는 경계는 3 가지 다른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첫째는 하천이다. 한반도의 경우 압록강과 두만강이 대륙 깊숙한 곳에서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큰 산맥이 대륙에서 반도로 이어져 있을 때는 사정이 달라진다. 다른 하나는 대륙과 반도가 맞닿는 좌우지점에서 직선으로 잇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평탄한 지역에서는 고려해볼 수 있는 방식이다. 그러나 해안선을 따라 가며 어느 지점부터 반도가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지 구분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대륙과 반도를 분수령으로 나누어보는 방식이다. 대간과 정간, 정맥의 개념과 같이 땅을 산줄기로 나눈다면 서수라에서 시작되는 장백정맥, 두류산과 마대산을 잇는 백두대간의 일부 그리고 청북정맥을 거쳐 미곶까지 이어지는 선을 한반도의 북한계선으로 볼 수도 있다.

우리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국토를 한반도로 규정하고 있다. 첫 번째 경우를 인정하고 비판 없이 받아들일 때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두 번째나 세 번째 경우가 합리적이라면 헌법에 오류가 포함되어 있는 셈이다. 반도라는 단어가 반쪽 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조석필 1997) 한반도라는 용어 자체에 대해서도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한반도를 토끼 모양이니 호랑이 모양이니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나타난 국토에 개념을 맞추어 나타난 소모적인 논쟁이다. 또한 백두대간이라는 개념과 국토 범위를 겹치다 보니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는 땅 나누기 현상이 나타났다. 백두대간 개념은 지극히 제한된 시기에 나타난 국경선에 기초하여 나온 개념이라 이러한 한계를 안고 있다.

무엇보다 동물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이동축이 백두산에서 끝날 수 없다. 그것은 더 북쪽으로 길게 연장되어야 한다. 또한 동물들은 서식조건과 활동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상위단계의 포식동물이 백두대간을 느끼는 것과 하위단계의 초식동물이 느끼는 것이 다를 것이다. 같은 포식동물이라 하더라도 호랑이와 여우가 환경을 보는 방식은 다르다. 우리가 이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서는 백두대간을 고식적으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 최근의 인공위성 자료를 바탕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의 녹지 분포를 그려보면 결코 백두산 부근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나누어지지 않는다(그림 5, Xiao *et al* 2002 참조).

앞에서 언급했던 영조 때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西北彼我兩界萬里 覽之圖)에서는 압록강과 두만강 남북지역의 산과 강줄기를 소상하게 그려놓아 분수령의 개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 1876년에 일제의 육군참모국에서 처음 인쇄한 조선전도와 1904년 흑룡회본부(黑龍會本部)에서 제작한 것으로 알려진 만한신도(滿韓新圖)에서는 산줄기가 백두산에서 좌우로 갈라지는 장백산맥을 뚜렷하게 표시하고 있어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의 분수령을 확인할 수 있다(영남대학교 박물관 1998). 이처럼 지도는 제작자가 가진 의도를 반영하고 있어 그 안에 들어 있는 개념을 읽을 수 있는 사료가 된다.

백두대간 체계 안에 들어 있는 유역 개념은 우리 조상의 자랑스러운 지혜의 소산이다. 한국의 전형적인 경관짜임은 이러한 유역 개념에 바탕에서 피어났을 가능성도 있다(그림 3, 이도원 2003). 그러나 이 글의 후반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백두대간 체계를 이끌어낸 기본적인 시각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다. 선조들의 생각이 자랑스럽기는 하지만 현명하게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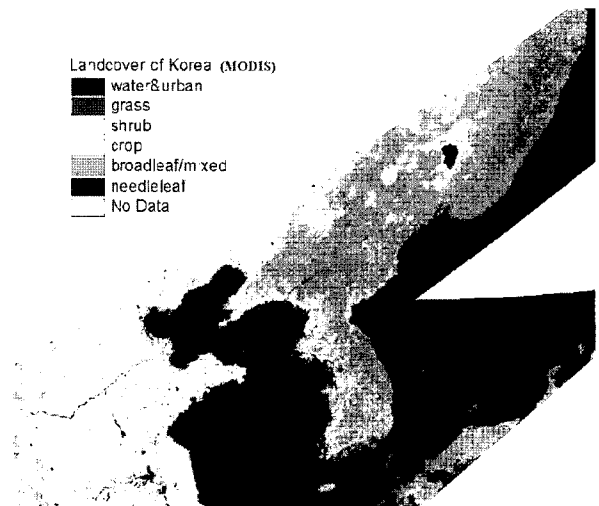


Fig. 5. Distribution of green area in the Korea Peninsula and north-eastern part of Chi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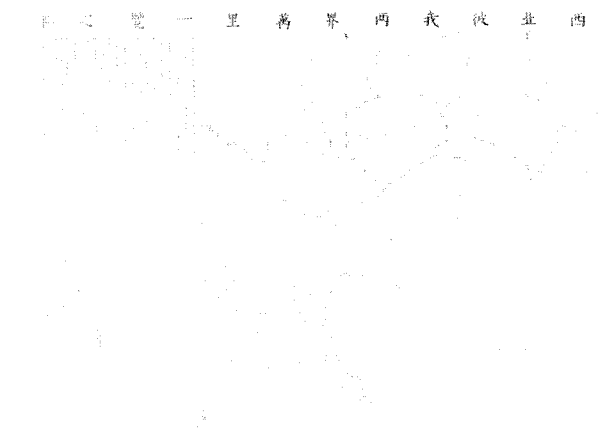


Fig. 6. Mountain ranges and rivers of the Ubok and Dooman Rivers region appearing in an old map drawn in the 18th century, Seobookpiyanggyemanriilram-Jido (by courtesy of the Kyujang-Gak Archiv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시킴을 위해서는 비판적인 태도와 함께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 사사(謝辭)

이 글은 서울대학교 간접연구경비에서 지원된 연구비에 의해 수행된 결과물로서 이도원(2003)의 내용 일부를 발췌하여 발전시킨 것이다. 초고에 대한 계명대학교 김종원 교수님의 의견을 모두 수용하지 못했지만 원고 발전에 도움을 준 건설적인 비판에 감사한다.

### 인용문헌

- 김만희. 1994. 한국의 호랑이. 한국민속칼라북스 제3집 증보판. 상미사, 서울.
- 김봉렬, 관조. 2002. 가보고 싶은 곳 머물고 싶은 곳. 안그라픽스, 서울.
-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97. 서울시행정사: 서울역사총서(1). 서울특별시.
- 서인원. 2002. 朝鮮初期 地理志 研究: 東國與地勝覽을 중심으로. 해안, 서울.
- 양보경. 2002. 우리 민족의 전통적 산지관(山地觀)과 백두대간. 공우석 등 다수(저) "백두대간의 자연과 인간"에서, 산악문화, 서울. pp. 19-62.
- 영남대학교 박물관. 1998. 영남대박물관 소장 韓國의 옛 地圖. 영남대학교 박물관, 경북 경산시.
- 오주석. 2003. 오주석의 한국의 미 특강. 솔출판사, 서울.
- 이도원. 2001. 경관생태학-환경 계획과 설계, 관리를 위한 공간생리. 서울대학교 출판부, 서울.
- 이도원. 2003. 한국 옛 경관 속의 전통생태. 서울대학교 출판부 (인쇄중).
- 이상태. 1999. 땅과 고지도 발달. 김형국(저) "땅과 한국인의 삶"에서, 나남출판, 서울. pp. 125-155.
- 이우형. 1996. 옛 지도에서 읽어지는 우리 산 그 줄기: 우리 땅 그 산들은 우리의 역사와 문화창조의 모태. 한국토지공사(저) "땅 이야기"에서, 한국토지공사 홍보실, 서울. pp. 59-65.
- 이찬. 1991. 韓國의 古地圖. 범우사, 서울.
- 조석필. 1997. 태백산맥은 없다. 사람과 산, 서울.
- 최석기 등 다수 옮김. 2001. 선인들의 지리산 유람록(어인으로 파한집 제1권 14항 지리산유람기록). 돌베개, 서울.
- 최완수. 1999. 경재를 따라 가는 금강산 여행. 대원사, 서울.
- 최원석. 2000. 嶺南地方의 裨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서울.
- 최창조. 1984. 한국의 풍수사상. 민음사, 서울.
- 한영우. 1999. 한국인의 전통적 지리관. 김형국(저) "땅과 한국인의 삶"에서, 나남출판, 서울. pp. 19-28.
- 한영우, 안휘준, 배우성. 1999. 우리 옛지도와 그 아름다움. 효형출판, 서울.
- US EPA. 2002. A review of statewide watershed management approach. <http://www.epa.gov/watertrain/watershedmgmt>
- Xiao, X., S. Boles, J. Liu, D. Zhuang and M. Liu. 2002. Characterization of forest types in Northeastern China, using multi-temporal SPOT-4 VEGETATION Sensor data. *Remote Sensing of Environment* 82: 335-348.

(2003년 6월 22일 접수; 2003년 7월 17일 채택)

---

## Watershed Concept Embedded in The Baekdoodaegan Frame

Lee, Dowon, Joon Hwan Shin<sup>1</sup> and Sinkyu Kang<sup>2</sup>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lanning,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151-742, Korea*

<sup>1</sup>*Department of Forest Environment, 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 Seoul 130-712, Korea*

<sup>2</sup>*Numerical Terradynamic Simulation Group, School of Forestry, University of Montana, Missoula, MT 59812, USA*

**ABSTRACT** : Ecological concepts were embedded in the old Korean maps and other documents. The concepts may represent ecological views which people had at the time. Through those ecological views, we propose that we can see a watershed concept in old Korean maps. We also discuss relevant records to understand the history of this concept. While many scholars have highlighted in the Baekdoodaegan frame only the part of the mountain ranges, we are pointing out other perspectives. Our emphasis is that the concept is explicitly related to a watershed concept. An old Korean map shows that people at that time divided the Korean Peninsula into many watersheds, which was as early as 1402. We can even say that the idea is identified in a literal document written in the 12th century. It is hypothesized that a typical Korean landscape configuration was developed in the arrangement of village and surrounding landscape elements situated in a watershed. In addition, we suggest that the view had some negative effects on the current society. Even though the ideas of our ancestor are something to be praised, further study is needed to improve it in a wise manner.

**Key words** : Baekdoodaegan, Landscape, Old documents, Watershed

---